

‘전국 최강’ 광주수피아여중 농구 시즌 첫 우승

제60회 춘계 중고농구 연맹전 결승서 온양여중 64-46 격파 스피드·수비 농구... 전승 우승 수피아여고는 온양여고 꺾고 오늘 분당경영고와 결승전



광주 수피아여중 농구부 선수들이 21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끝난 제60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여중부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피아여중 농구부 제공

지난해 4관왕을 달성한 광주 수피아여중 여자농구팀이 올시즌 첫 전국대회에서 전승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강’ 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수피아여고 여자농구도 결승에 올라 수피아여중과 함께 전국대회 동반 우승을 눈앞에 뒀다.

수피아여중은 21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60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여중부 결승에서 온양여중을 64-46으로 격파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해 연맹회장기와 51회 전국소년체전, 77회 중별선수권,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등 4개 대회를 휩쓴 수피아여중은 올시즌 첫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전승 우승과 함께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이 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또 올시즌 출전 대회 모두 우승을 향한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수피아여중은 B조 예선에서 동주여중

(87-63 승)과 온양여중(57-53 승), 선일여중(81-57 승)을 연파, 3승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붕의중과의 준결승에서 92-63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수피아여중은 1쿼터를 임세운(2년·포워드)과 임연서(3년·가드)의 활발한 득점포에 힘입어 19-9로 크게 앞서며 주도권을 잡았다.

2쿼터에서도 17-6으로 앞서며 전반을 36-15로 마친 수피아여중은 3쿼터와 4쿼터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한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가드 임연서가 32득점 16리바운드 5어시스트 3스틸 1블록슛의 맹활약을 펼치

며 승리를 이끌었다.

포워드 임세운(17득점 2리바운드 2블록슛)과 포워드 김담희(2년·11득점 13리바운드 2어시스트 5스틸 2블록슛)도 지원사격하며 힘을 보탤다.

임연서는 이번 대회 총 197득점, 경기당 평균 39.4점을 올리며 득점상과 함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임연서는 경기 후 “지난해보다 전력이 약해져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려 많이 걱정했는데 팀원들의 강한 우승 의지가 모여 시즌 첫 시험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며 “호흡이 잘 맞은 팀원들 덕분에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우승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수피아여중의 이번 우승은 윤새나 감독과 이선영 코치의 탁월한 지도력과 탄탄한 팀 조직력에 기인한다.

여기에 지난해 4관왕 주축 선수였던 3학년 임연서와 김사랑(포워드) 등을 중심으로 2학년 임세운(2년·포워드), 손세훈(2년·센터), 김담희 등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기량이 더욱 성장한 점도 우승에 한 몫했다.

이선영 수피아여중 코치는 “시즌 첫 전국대회를 우승으로 시작해 기쁘다. 선수들이 동계훈련 동안 체력훈련과 함께 빠르고 강한 압박 수비와 속공 플레이를 집

중적으로 훈련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경기력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다음 출전 대회인 5월 연맹회장기와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피아여고는 이날 해남 동백체육관에서 열린 여고부 준결승에서 온양여고에 82-76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수피아여고는 A조 예선에서 2승 1패를 기록, 조 2위로 8강에 오른 뒤 효성여고를 71-63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수피아여고는 준결승에서 1쿼터를 22-27로 뒤졌지만 2, 3쿼터에서 센터 고현지(3년·183cm)와 포워드 조민하(3년·170cm)의 득점포가 터지면서 64-54로 승부를 뒤집었다. 4쿼터 들어 턴오버를 연발, 상대에게 분위기를 내주면서 종료 5분을 남겨두고 69-70으로 역전을 허용한 수피아여고는 이후 엇치락 뒤치락하다 포워드 이지후(2년)의 3점포와 고현지의 미들슛이 연달아 터지면서 77-73으로 승기를 잡았다. 이후 온양여고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결승행을 확정지었다.

수피아여고는 같은날 준결승서 선일여고를 86-52로 물리친 분당경영고와 22일 오전 11시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최동환 기자 cdstone@jilbo.com

광주FC, ‘멀티플레이어’ 오후성 영입

포워드에 미드필더까지 소화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멀티플레이어 오후성(23·사진)을 영입, 전력을 보강했다.

광주는 21일 대구FC에서 맹활약한 미드필더 오후성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후성은 이순민과 정호연, 이강현, 박한빈 등으로 이뤄진 허리 라인에 아사니, 엄지성, 이희균 등이 활약하고 있는 공격진까지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성은 173cm, 64kg의 날렵한 체격으로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을 장장했다.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뛰어난 패스 능력까지 가미해 윙 포워드 공격형 미드필더, 새도 스트라이커까지 가능한 멀티 자원이다.

대구FC U-18(현풍고등학교) 출신으로



로 지난 2018년 프로에 직행해 다섯 시즌 동안 K리그1과 R리그, K4리그를 오가며 경험을 쌓았다. 2021시즌에는 팀의 핵심 U-22 자원으로 활약했다. 프로 통산 45경기에 출장해 2득점 2도움을 올렸다.

최근 2년간은 아시아 무대에서도 활약을 펼쳤다. 2021 AFC 챔피언스리그 I조 조별예선에서 4경기, 2022 AFC 챔피언스리그 F조 조별예선에서 2경기에 나섰다. 특히 2021년 7월 베이징 귀안(5-0 승)과의 경기에서는 후반 추가시간 팀의 다섯 번째 득점, 2022년 4월 산둥 타이산(4-0 승)과의 경기에서는 후반 21분 팀의 네 번째 득점을 성공시키며 중국 킬러로 등극했다.

한규빈 기자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앞두고 훈련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21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24일 콜롬비아, 28일 우루과이와 차례로 평가전을 치른다. 뉴스스

광주체육중 유도, 순천만 국가정원컵서 선전

조효진 52kg 금·박보빈 63kg 동여중부 단체전은 동메달 획득

광주체육중학교 여자유도팀이 올시즌 첫 대회인 2023 순천만 국가 정원컵 전국 유도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뒀다.

광주체육중 여자유도팀은 지난 16-18일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조효진(3년)이 여중부 -52kg급 결승에서 고다연(인천 연성중)을 바다리 후리기 한판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조효진은 8강전을 제외한 결승전 포함 4경기를 한판승으로 상대를 제압해 차세대 광주 유도 기대주로 떠올랐다.

조효진은 청소년대표로 뛰어난 신체조건과 우수한 근력을 가졌다. 특히 -48kg

급에서 체급을 올렸음에도 무난한 적응을 보여 오는 5월 전국소년체전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박보빈(2년)은 여중부 -63kg급 8강에서 박지아(경기체육)를 주특기인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이창아(무극중)에게 양소매 업어치기 한판패를 당하며 동메달에 만족했다.

박보빈·박효경·조효진·김효담·박선정이 팀을 이끈 단체전에선 동메달을 따냈다. 8강전에서 서울체육중을 3-2로 누른 광주체육중은 준결승에서 서울 중앙중에 2-3으로 석패했다. 이준재 광주체육중 교장은 “선수들의 선전에 박수를 보내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학생들이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정진영·김옥금 태극마크

국대 최종선발전서 종합 1위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정진영과 김옥금이 2023년 장애인양궁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됐다.

정진영(컴파운드 오픈)과 김옥금(W1)은 지난 9-20일 경기도 이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전선수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치러진 202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1, 2, 3차 모두 1위에 오르며 종합 1위로 태극마크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선발전은 지난해 9월 개최된 2023년 장애인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각 종목 종합순위 1-4위에게 참가 자격이 부여됐다.

선발전 결과 리커브 남녀 각각 2명, 컴파운드 남녀 각각 2명, W1 남녀 각각 2명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김옥금(왼쪽)과 정진영 선수.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제공

등 총 12명의 국가대표가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전선수촌 양궁장에서 진행되는 제1차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합류한다.

정진영과 김옥금은 오는 7월 장애인양궁 세계선수권대회, 10월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1월 방콕 장애인아시

아선수권대회에 출전 금메달에 도전한다. 정진영은 “힘든 훈련과정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 나 자신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며 “태극마크가 주는 무게감을 항상 새겨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금메달로 광주 장애인양궁의 강함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옥금은 “우선 목표는 올해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24 파리 패럴림픽 무대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은 “태극마크를 향해 쉽 없이 달려온 선수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